어린이 책꽂이

▲열두살에 처음 만난 정치=고리타분하고 시끌벅적하게만 느끼기 쉬운 정치를 자상한 아빠의 목소리로 친절히 알려주는 책이다.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 생활속의 정치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니어 김영사·9천500원〉

▲천재를 뛰어넘은 33인의 연습벌레들(제2편)=국내외 연예,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역할모델들의 생생한 이야기. 수영영웅 박태환에서 부터 찰리 채플린, 잭 니콜라우스까지 반짝 스타를 넘어 존경받는 문화리더들의 일대기를 담았다.

〈다산 어린이·9천800원〉

▲아르노가 들려주는 중세 유럽의 비밀=중세 시대, 유럽의 프랑스 쿠시 성을 배경으로 중세 유럽의 문화와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농부·기사·영주의 일상생활, 성과 요새의 모습, 성을 둘러싼 전쟁, 기사 수여식, 종교생활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크레용 하우스·9천원〉

▲유일한 이야기=지난 1992년 처음 출간된 '유일한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출간한 책이다. 평생 정직하게 기업을 일궈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그의 삶은 참 부자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숲속의 요정=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지닌 자연의 신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유아 그림책이다. 각 계절이 지닌 자연의 신비가 동생 샘의 엉뚱하고 발랄한 질문과 스텔라의 재치있는 대답으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현암사·7천800원〉

히틀러·루소·카프카·하이데거·푸코…

인간의 대푯값 지닌 천재들 내면 해부

광기와 천재 고명섭 지음

뭔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흔히 말한다. '광기'와 '천재성'은 과연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등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히틀러는 '혀'로 주체할 수 없는 광기를 대중들에게까지 심었던 선동의 천재였다.

한겨레신문 기자 고명섭씨가 '광기와 천재'에서 천재라 불리는 '문제적 인간들'의 광기를 들췄다.

아돌프 히틀러, 세르게이 네차예프, 조제프 푸셰, 장자크 루소, 나쓰메 소세키, 프란츠 카프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마르틴 하이데거, 미셸 푸코 등 저자가 선택한 사람들은 "대푯값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인간"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전형성을 띠고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그 전형성이 아닌 인간 자체다.

저자는 히틀러가 지닌 광기의 원인을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절망감에서 찾았다.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소작농의 하녀이자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 알로이스 히틀러는 세번째 부인에게서 히틀러를 낳았으며 가난을 벗기위해 노력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돌프는 아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고자 했던 아버지에게 '눈엣가시'였고,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휘둘러대는 아버지에게 저항했다.

갈등이 극에 달할 즈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아돌프는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길 바랐던 마음'을 품었던 데 대해 죄의식을 느꼈다. 이후 발칸전쟁에 일개 사병으로 참가하기 전까지 아돌프는 두 번의 미술학교 낙방 등을 겪으며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소설 '악령'에서 표현한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는 러시아 혁명가 세르게이 네차예프였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바노프 살해 사건'을 언론에서 접한 뒤 자신의 작품에 그를 넣기로 결정했다. 1869년 동료 이바노프를 살해한 '악령' 네차예프 역시 당시 특권층 출신의 혁명가들이 득세했던 분위기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해방 농노인 칠장이와 재봉사 사이에서 태어난 하층민 출신에 '무늬만' 대학생이었던 그의 성분은 '광기'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됐다.

프란츠 카프카 문학의 기저가 된 것은 죄의식이었다. 잇따라 태어난 세 명의 동생 중 둘이 죽은 것이다. 히틀러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것처럼, 카프카도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들이 사라진 것에 자신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죄의식을 키웠다.

저널리즘 글쓰기의 맹점으로 꼽히는 '깊이의 부족'은 꼼꼼한 독서에서 나온 저자의 부지런함으로 채워진다. 9명의 인물에 대해 쓴 9권의 평전이기엔 여전히 얕은 구석이 있지만 '광기와 천재성'이 어떻게 작용했고, 현실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됐는지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인물과사상사·1만6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미셸 푸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프란츠 카프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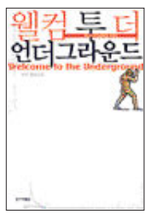
〈아돌프 히틀러〉

〈세르게이 네차예프〉

〈마르틴 하이데거〉

"때론 삶이 악몽보다 잔인하다"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 서진 지음



박민규씨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8회) 등 발표 때마다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겨레문학상의 12회 수상작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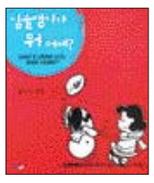
서진씨의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는 저자가 지난해 뉴욕에서 머물며 쓴 작품.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김하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지하철에 '방치'돼 있다.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지만 직전에 쓰러져 버리고 의식을 차린 후엔 다시 지하철로 돌아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내와 힘겹게 이민생활을 하던 주인공은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고의 사고를 위장해 건물과 함께 무너지면서 지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이 사는 곳 '언더그라운드'로 흘러들어간다. 소설가 박범신씨는 "'언더그라운드'는 공소하고 쓸쓸한 현대인의 이면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꿈의 무덤이다. 낯설지만 지상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인간적"이라고 말한다.

〈한겨레출판·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스누피와 친구들이 펼치는 코믹만화

… 피너츠 시리즈 찰스 M. 슐츠 지음



지난 1950년 찰스 M. 슐츠가 탄생시킨 '스누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다.

개성과 위트로 똘똘 뭉친 스누피와 그의 친구들인 찰리 브라운, 심술쟁이 루시와 샐리, 천재 음악가 슈로더, 발상이 독특한 페퍼민트 패티 등을 만날 수 있는 영한 대역본 '스누피 만화-피너츠 시리즈'가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심술쟁이가 뭐 어때?', '걱정은 걱정을 낳는다', '많이 컸네, 찰리 브라운' 등 모두 세권이다.

주인공인 비글종 애완견 스누피와 친구들이 펼치는 에피소드는 코믹만화의 전형을 보여주며 그들은 때론 심오하기까지 한 철학적, 문학적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특히 기본을 갖춘 문장에 유머까지 곁들여진 그들의 대화는 미국 표준 영어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이책·각권 6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구리 료헤이 '우동 한 그릇'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하며 보낸다. 직장에서의 일이 대부분 그렇지만 딱딱하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에 대한 반동심리에서인지, 퇴근 후에 나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것을 찾게 되었다.

어려운 전문서적 보다는 시,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경직됐던 나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있다.

나의 휴식과 함께 한 수많은 책 중에서 단 한권의 책을 꼽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의 감동과 그 책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한 권을 꼽는다면 단연 일본인 구리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을 선택하고 싶다.

'우동 한 그릇'에는 세 모자와 우동가게 주인이 등장한다. 세 모자는 우동 한 그릇을 나눠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우동가게 주인이 세 모자를 따뜻한 배려로 감싸주어 결국 세 모자가 다시 일어선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으면서,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힘이 되어주었다. 특히 세 모자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 때, 나로 하여금 마지막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내가 이 소설을 처음 읽은 것은 지난 1990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나는 광주 하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일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

있었다.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순서는 먼저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땅을 취득 또는 수용하고, 향후 이를 개발해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경험했었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절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세 모자처럼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었다.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내모는 것 같은 죄스러움에 고민도 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만 할 일이었고, '나 한 사람이라도 우동가게 주인의 마음으로 토지소유자 분들을 세 모자라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그분들께도, 내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토지수용을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이란 법적 절차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불미스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한권의 책 덕분이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세 모자와 같은 분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이주하셨던 분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부디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동가게 주인이 가진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한 우 석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